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창세기 3:9-15	제2독서	코린도2 4:13-5:1	복음	마르코 3:20-35
--------	------	------------	------	---------------	----	-------------

◎말씀 < 하느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

과거 독재세력은 장기집권을 위해 반공과 지역주의를 조장했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세뇌시켰습니다. 복음의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자기네의 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고 그 외의 가능성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렇게 대대로 기득권을 유지해왔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마녀사냥 하듯 제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느님은 자기들의 상식, 가르침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들렸다, 미친놈이라며 매장을 시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농민운동,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등 기득권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때면 늘 좌익, 빨갱이 딱지를 붙여왔습니다. 색깔론, 북풍으로 두려움을 자극하고 선거에 이용해왔지요. 더 이상 기득권이 만든 틀대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늘 옳지는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큰 변화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종교, 체제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박해받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 교회가 권력을 등에 업으면서 엄청난 기득권이 됩니다. 힘이 생기자 비판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오로지 획일적인 것만을 강요합니다. 박해를 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래 들어 교종께서 고군분투 하시지만 한국교회의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일까요? 교회의 쇠신은 권한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연히 사제들부터여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논의가 많이 부족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독서에서 하느님은 사람(아담)에게 “너 어디 있는냐?” 하고 물으십니다. “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틀 안에 가두고 있진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 듯합니다. 혹은 힘으로 남을 좌지우지하는 이들 편에 서진 않는지, 제대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특히 선거철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지, 하느님 모상인 사람을 존중하는 이들을 지지하는지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不狂不及)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미쳤다는 건 욕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누이 형제 어머니가 되기 위해 기꺼이 미친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6월 12일(화)	연중 제10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3,375.00 \$ 1,354.00
6월 13일(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14.00 \$ 161.00
6월 14일(목)	연중 제10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성모의밤	\$ 120.00 \$ 416.00
6월 15일(금)	연중 제10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원캠페인 기타수입	\$ 100.00 \$ 420.00
6월 16일(토)	연중 제10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사순저금통 합 계	\$ 1,053.00 \$ 7,113.00
6월 17일(일)	연중 제11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12명 성인: 179명
교무금봉헌자	김희숙(1-12월)황성연.류승교.권오돈.정규선(5-6월)이호영.이진행(1-6월)김팔봉(4-5월)정용우 지영욱.안기창.김계숙(5월)윤영자.윤재경.김규철.류정임.김광희.안강순.김상돈.박을생.최이주. 김운태.전기례.이상기.허용희.김승제.박용호.김길록.이원건(6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 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식사기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며 정성껏 바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식사 전과 후에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이 내려주신 양식에 감사드리다는 의미로 감사와 은총을 뜻하는 라틴어 그라시아(Gratia)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식사 전 기도 내용은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하나님께 준비된 음식과 음식을 나눌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청하는 동시에 주신 선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물과 음식에서조차 주님께 온전히 의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성호를 그으며 식사 기도를 정성껏 바쳐야 합니다. 이 단순한 몸짓은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기도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조용한 몸짓이 거리의 모퉁이에서 외쳐대는 몇천 마디 말보다 더 크고 웅변적이며 강력한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위령 기도(慰靈 祈禱 :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연도’ 라고도 한다)는 식사 후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

일상적으로 식사 전 기도는 잘 바치지만, 식사 후 기도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도 하루 세 번씩이나 밥상 앞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것은 산 이와 죽은 이 사이에도 통공(通功, 라틴어 Communio)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의’ 교리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
-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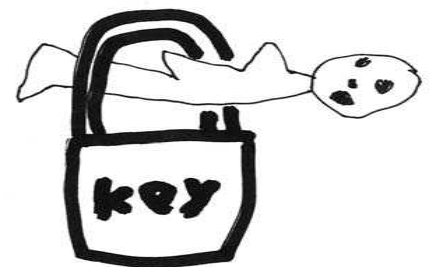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손명화.엘리사벳의 영육간건강	익명	생	최응철.레오의 영육간 건강	송돈희.요셉
생	전정옥.율리안나의 영육간 건강	익명	생	김용문.요한 가정을 위하여	진엘리사
생	Caroline의 영육간 건강	익명	생	최응철.레오의 영육간 건강	김용문.요한
연	James McCusker의 영혼	연령회			

간장종지

◎사랑법◎

자물쇠로 끄꽂 잠그니 자폐아인 아들은 자꾸 집을 나갔다. 할 수 없이 바깥에서 잠가보기도 했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제 새집을 지어 아예 자물쇠로 잠그지 않으니, 그는 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집을 지킨다.

- 어느 자폐아 부모의 말에서 -
강은교.클라라(시인)김복태.사도요한(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	---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	---	--	--

--	--	--	--

